

2 홋카이도의 독자적인 문화



수수께끼의 암면각화

1866(게이오 2)년에 오타루시의 데미야 동굴에서 바위에 새겨진 문자나 그림과 같은 암면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문자로도 추정된 암면각화는 1950(쇼와 25)년에 요이치초의 후곶페 동굴에서 일본 최대급의 암면각화가 발견되면서 이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후곶페 동굴의 암면각화는 1~4세기경의 속 조몬문화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화는 유라시아 대륙 등과의 공통성은 없으며 암면에 그림을 그리는 문화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인 상태입니다.

2천 수백 년 전에는 홋카이도에서는 조몬문화가 끝을 맞이하고 속 조몬문화로부터 사쓰몬문화로 독자적인 문화가 전개됩니다.

속 조몬문화는 2천 수백 년 전부터 7세기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속 조몬문화가 시작할 무렵 서일본에는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베히사와 금속기가 전해지고 동북지방으로 이르기까지 야요이 문화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쓰가루 해협을 낀 홋카이도에서는 베히사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의 철기가 전해지면서 수렵, 어로, 채집의 기술 등이 발달했습니다. 속 조몬문화의 사람들은 이속고 홋카이도와 혼슈, 홋카이도와 사할린과의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쓰몬문화는 7~8세기경, 혼슈 쪽 문화의 영향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하던 조몬 문양의 토기와 석기가 사라지고 토사기를 닮은 토기나 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쓰몬문화의 사람들은 강어귀 근처에 마을을 만들어 수렵이나 어로 그리고 좁쌀이나 피 등의 잡곡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쓰몬문화는 12세기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혼슈와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철로 만든 도구가 홋카이도에 많이 들어 오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변해갔습니다.

사쓰몬문화와는 별도로 5세기경, 그 당시에 홋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와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할린으로부터 홋카이도의 오호츠크 해 연안으로 건너오고 이속고 쿠릴 열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아시아대륙의 북동부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문화를 “오호츠크문화”라고 합니다. 오호츠크문화는 9세기경까지 지속됩니다. 주로 어로를 하며 고래나 바다표범 등의 바다짐승을 잡고 아시아대륙의 북동부나 혼슈와의 교역 활동을 했던 모습에서 유래되어 오호츠크 사람들은 “해양의 백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속 조몬문화와 사쓰몬문화는 혼슈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호츠크문화는 사할린이나 아시아대륙의 북동부 등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홋카이도는 북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혼슈와는 다른 지역성 풍부한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오호츠크문화 —사람들의 기원—

오호츠크문화의 사람들은 곰이나 고래, 바다표범, 조류 등 많은 동물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바시리시의 모요로 패총이나 기타미시 도코로의 사카에우라 제2 유적 등에서는 주거 안쪽에 곰이나 사슴의 머리뼈를 쌓은 골총과 바다짐승류나 조류의 뼈를 쌓은 골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곰을 특별한 대상으로 여긴 오호츠크문화에서는 곰의 모습이 표현된 토제품, 어금니와 뼈로 만든 조각품, 토기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교류와 교역

오호츠크문화의 유적에서 띠 장식, 연옥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출토물은 아무르 강(헤이룽 강)의 중하류 유역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호츠크문화가 사할린이나 아시아대륙의 북동부 등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쓰몬문화는 혼슈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쓰몬문화의 사람들은 교역을 통해 다양한 철기를 손에 넣고 혼슈의 스에키 토기와 하지키 토기가 홋카이도 전역에 퍼집니다. 이 시기에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연결되는 2개의 교역 루트가 있었습니다.